

아무도 가지 않은 길

2023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Purme Foundation Annual Report



0 INTRO

목차	02
인사말	03

1 빛나는 순간

2023 푸르메재단 10대 뉴스	06
숫자로 보는 2023년	08
투명한 푸르메: 2023 재정보고	10
백경학 상임대표 인터뷰	12

2 모두가 하나된 공간

개원 1주년 맞은 푸르메소셜팜·무이숲	15
2023 농장 이야기	16
배우 천우희의 특별한 하루	18
푸르메와 사람들 1:	20
자립 직원 3인 인터뷰	
멀리서 날아온 응원:	22
김민재 홍보대사	

3 같이 성장

장애가족지원사업	25
재활의료사업	30
푸르메와 사람들 2:	36
권은영 기부자 가족 인터뷰	
지역복지사업	38
자립지원사업	43
푸르메와 사람들 3:	46
더미라클스 이정모 기부자	

4 함께 나눔

2023 푸르메 캠페인	49
함께하는 이웃	52
함께하는 기업	54
푸르메와 사람들 4:	56
박재홍 CBS 아나운서	

5 푸르다, 푸르메

재단 소개	58
-------	----

2023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4년 4월 3일 | 발행처 푸르메재단 | 발행인 백경학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 | T 02-720-7002 | F 02-720-7025
홈페이지 www.purme.org | 기획·편집 푸르메재단 마케팅팀 | 디자인 그래픽오션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은 어려웠던 만큼 새로운 동력을 많이 얻은 한 해였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팬데믹 시대를 벗어나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몇 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많은 사람이 아쉬워했던 ‘미라클365 푸르메란’이 4년 만에 오프라인 대회로 개최되기도 했지요. 맑게 갠 4월의 봄날, 장애어린이를 위해 힘든 기색도 없이 달리던 참가자분들의 환한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기쁨을 나눌 날이 앞으로는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속에 2022년 정식으로 문을 연 푸르메소셜팜과 베이커리 카페 무이숲이 지난해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곳에서 현재 54명의 발달장애 청년이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직원 중 6명이 거주하던 장애인시설과 가정에서 독립하여 자립의 꿈을 이루는 의미 있는 성과까지 얻었습니다.

2023년 2월 새로 출발한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도 잘 자리 잡아 장애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손잡아주신 모든 기부자 덕분입니다.

푸르메재단과 각 산하기관은 끝없이 찾아오는 고비에도 흔들림 없이 항상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데 모든 기관이 뜻을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어린이가 제때 필요한 치료와 교육을 받으며 잘 성장하고, 장애 청년이 원하는 일을 하며 스스로 삶을 일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늘 푸르메재단과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봄
푸르메재단 이사장 **강 지원**

놀라지 마세요,

제 꿈은 경찰이에요!

희귀난치병으로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섬이.

아섬이의 꿈은 경찰입니다.
멋진 경찰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아섬이는
매일 눈물이 날 만큼 힘든 치료를 견뎌냅니다.

“아파도 제 꿈을 위해서 이겨낼 거예요.”

꿈을 향한 아섬이의 여정,
푸르메재단이 응원하며 함께합니다.

2023 푸르메재단 10대 뉴스

06

1

푸르메재단 대표이사 체제 출범

백경학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2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이순우 이사장 취임

이순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장애어린이의 재활에 함께 나섭니다.

3

푸르메소셜팜·무이숲 개원 1주년을 축하합니다!

발달장애 청년 54명의 희망 일터,
지역사회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4

한국가이드스타 평가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푸르메재단은 2023년에도 투명성 및
책무성, 재무효율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5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치료건수 130만 건 돌파

개원 후 총 치료건수 1,339,502건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장애어린이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6

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 더미라클스, 다시 뭉치다!

더미라클스 조찬회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2023년 총회원 40명이 되었습니다.



7

2023년 총 22억 원 규모 장애가족 지원사업 진행

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8

미라클365 푸르메런 4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

4년 만에 얼굴을 마주한 500인의 러너,
축제 같은 기부 현장을 즐겼습니다.



9

‘나눔 문화 꽃피운다’ 기부·봉사 실천한 기업들

2023년 159개 기업과 임직원이
나누고 봉사하며
아름다운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0

전국의 푸르메 천사, 장애 어린이·청년의 손을 잡다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푸르메 천사가게가
2023년 148곳 늘었습니다.



07

2023년 푸르메재단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희망을 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껏 노력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2023년

총 지원인원

814,166^명우리 사회 구성원으로堂堂히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

장애가족지원사업

4,998^명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재활, 사회적응·자립, 교육·문화·여가 등을
지원받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

푸르메 이웃

44,091^명2023년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나누고
봉사하며 희망을 전한 이웃들

자립사업

35,603^명사회로堂堂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를 지원받은
장애 당사자

협력파트너

1,260^개2023년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푸르메와 함께 도운 기업

지역복지사업

535,762^명생애주기별 복지·지역연계 서비스, 체육·독서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간 장애 당사자

재활의료사업

237,803^명재활·치과 치료 지원, 보조기기 서비스 등을 통해
제때 적절한 의료·재활 서비스를 받은 장애 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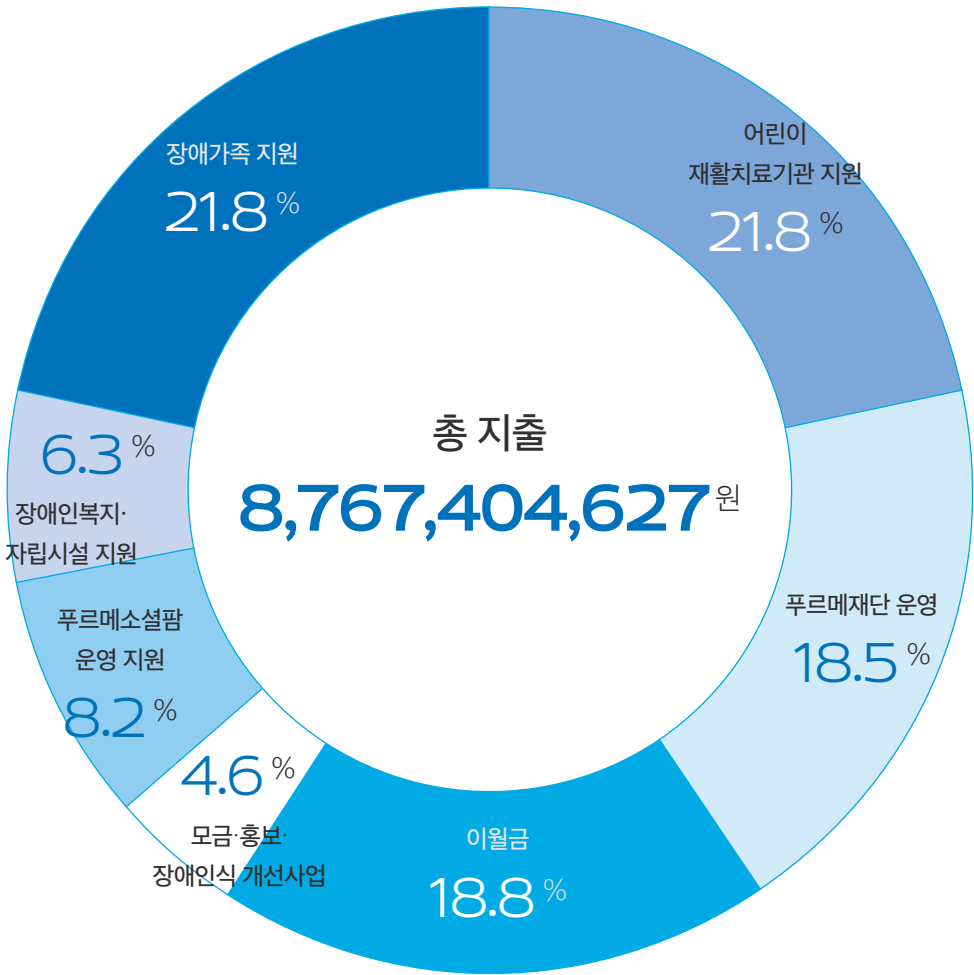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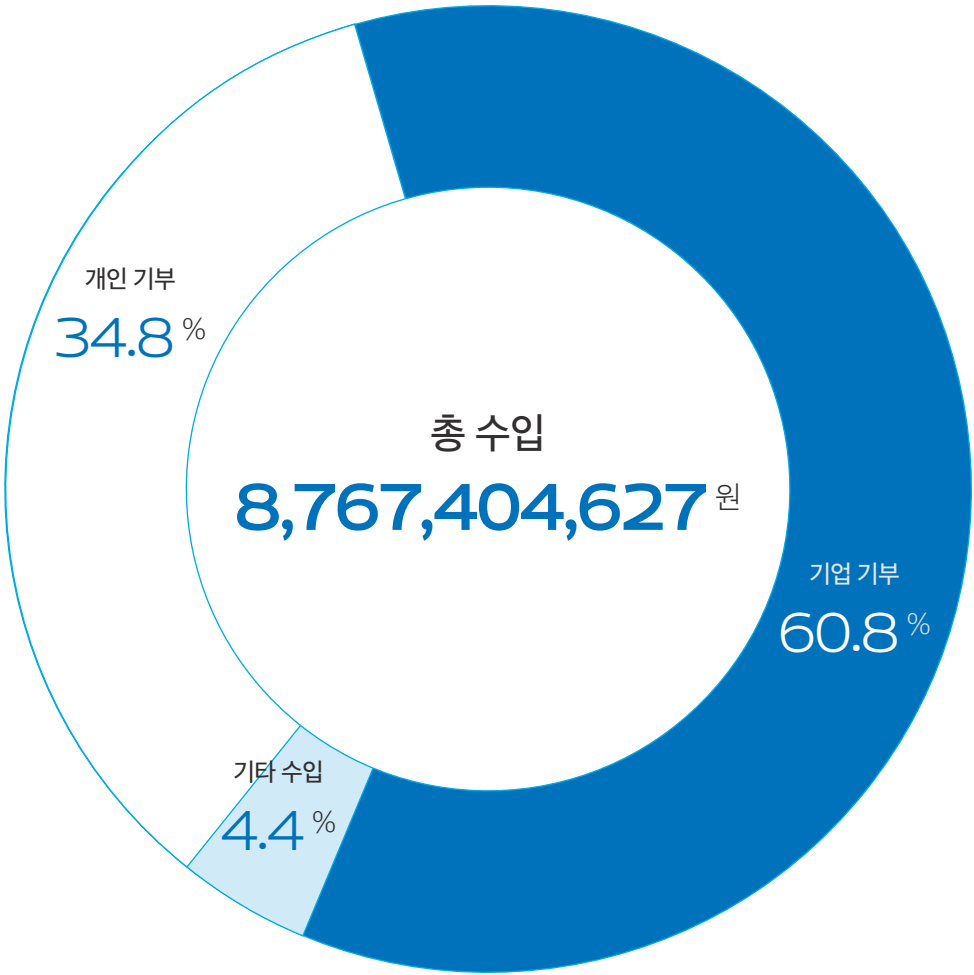
재정보고

푸르메재단은 2023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재
활과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통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기부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
용하고자 연 3회의 정기이사회 등을 통한 엄격한 내부 심사
와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
6년 연속 최고 등급 선정

푸르메재단은 2023년 비영리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
국가이드스타로부터 투명성 및 책무성, 재무효율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	장애가족 지원	1,907,685,114
●	어린이재활치료기관 지원	1,915,067,174
●	장애인복지·자립시설 지원	549,314,697
●	푸르메소셜팜 운영 지원	718,852,835
○	모금·홍보·장애인식개선사업	404,155,550
●	푸르메재단 운영	1,621,118,544
●	이월금	1,651,210,713

(단위: 원)

누군가 할 일, 푸르메가 합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

INTERVIEW



2023년 11월 27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백경학 상임이사가 푸르메재단의 대표이사(이하 상임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르메재단은 신임 백경학 상임대표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 세 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됩니다. 재단 설립 18년 만의 변화입니다.

백경학 상임대표는 감개무량하다는 표현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이사장을 맡아주신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님과 강지원 변호사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쫓아왔는데,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앞서 길을 닦아준 분들의 노고를 먼저 이야기하지만, 백경학 상임대표는 푸르메재단 설립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1998년 영국에서 당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치료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고, 유럽 선진국과 같은 재활병원을 국내에 세우기로 결심했지요. 그 길로 잘 다니던 언론사를 그만두고 재단 설립에 나섰습니다. 2005년 재단 설립 후 시민 1만 명과 기업의 나눔으로 430억 원을 모아 2016년 서울 마포구에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푸르메재단 넥스어린이재활병원(이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하고, 2022년 경기도 여주에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일터 푸르메소셜팜을 완공하기까지 그가 걸은 길에는 참으로 많은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국내 최초’ 타이틀로 걸어온 18년

그는 “그간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보람도 많았다”며 지난 18년을 추억합니다. “2007년 7월 국내 첫 민간 장애인 치과인 푸르메치과가 개원했을 당시 7시 30분쯤 출근하다 보면 부산, 창원,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밤 기차를 타고 온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가 아픈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치과에서 거부당한 환자들이었죠. 그들이 치료 후 편안한 얼굴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벅차올랐어요.”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내 내로라하는 종합병원들이 전부 어린이 재활에는 손을 내저었어요. 어린이 재활치료는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 절대 운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요. 장애인 아이들이 치료에 몇 년씩 대기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죠. 그래서 푸르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아니까요.”

그에게 있어 중요한 성과는 또 있습니다. 2022년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일터로 문을 연 푸르메소셜팜 건립입니다. 그 사업을 시작으로 푸르메재단은 장애인 생애주기를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려면 자녀가 독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장애 청년이 일하며 스스로 살아가야 해요. 발달장애 청년의 특성에 맞는 일은 무엇일까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생명을 키우면서 치유의 효과도 볼 수 있는 농업을 생각해냈지요. 개선할 점이 많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이 눈물짓지 않도록

푸르메재단의 우선 목표는 푸르메소셜팜을 성공적인 모델로 만드는 것입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모델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국책사업이 된 것처럼, 푸르메소셜팜도 정책 과제로 수용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일단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주의 푸르메소셜팜을 자생력을 가진 성공모델로 잘 정착시키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제2농장을 비롯한 생산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농인 과제는 현재 서른 살 전후인 푸르메소셜팜 직원들, 발달장애인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일반 요양시설은 장애인을 돌볼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장애인 전문 요양원은 정부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노화가 20년쯤 빨라요. 현재 장애직원들의 은퇴가 20년도 안 남았다는 얘가지요. 지금부터 고민해야 20년 후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소중한 인연 위로 새로운 기적을 쌓겠습니다

백경학 대표는 푸르메재단을 이끌면서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고마운 분들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한결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기부자들입니다. 푸르메재단이 지금껏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이지요. 사업의 고비마다 손을 내밀어주신 분들도 잊지 못합니다. 푸르메센터를 건립할 때는 이철재 기부자가, 병원 건립 때는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푸르메소셜팜을 건립할 때는 이상훈·장춘순 부부가 기적처럼 나타나 주셨고, 은평구청장을 지내신 권오록 기부자도 필요할 때마다 손을 잡아 주셨지요. 모두가 푸르메재단의 복이고, 참 감사한 인연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명감과 열정으로 뭉쳐 달려온 재단 직원들, 이사진, 후원자, 복지관과 병원을 오가는 수많은 이용자까지, 모두가 지금의 푸르메재단을 만들어낸 소중한 인연입니다.

푸르메재단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지금까지 짚어온 길 위로 또 다른 길을 올려야 하는 백경학 상임대표. 그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만큼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 그 장애 당사자들의 짐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PART. 2

14

모두가
하나된
공간개원 1주년 맞은
푸르메소셜팜
& 무이숲

2022년 9월 정식으로 문을 연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 장애·비장애의 벽을 허문 소통의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장하는 직원의 모습에서 희망을 봅니다

푸르메소셜팜은 발달장애인의 일터로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팜입니다. 그 안에 자리한 베이커리 카페 무이숲은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근로자로 대우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장애 직원들은 서류와 면접, 직무 테스트를 거쳐 입사하고, 2개월의 직무교육을 받은 뒤 정직원으로 채용됩니다. 직원들은 자신에게 잘 맞는 직무를 찾아 일하면서 직업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이곳에서 발달장애 직원들이 보여준 변화는 놀랍습니다. 동료와 함께 일하고 교류하면서 어휘구사력과 사회성이 부쩍 성장했습니다. 또 6명의 장애직원이 평생 거주한 장애인시설이나 가정에서 독립해 자립의 꿈을 이뤘지요. 일자리를 통해 사람이 바뀌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조은정 직원은 “일하며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동료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어 내

가 더 잘하고 있는 기분이 든다”며 “내년에는 방울토마토 수확과 리프트에 좀 더 적응해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푸르메소셜팜의 첫째 목표는 자생력을 갖춘 성공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전년도 대비 두 배가 넘는 146%의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판로를 확대하고 견학과 체험활동, 시설 대관 등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한 덕분이지요. 신규 온실 600평을 증축해 연간 생산량도 크게 늘렸습니다.

무이숲은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열어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누구나 찾아와 어울리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주 사과, 쌀을 이용한 메뉴를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간이 되었지요. 또 적절한 환경과 업무가 주어진다면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전국 곳곳에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을 모델로 하는 장애인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좋은 일터로 잘 가꿔나가겠습니다.

15



2023년 행복한 푸르메소셜팜·무이숲 이야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보여준 푸르메소셜팜의 특별한 하루



여주시와 함께한 플리마켓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와 플리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이 추구하는 큰 가치입니다.

크레디아 음악회

팬텀싱어로 유명한 테너 존노,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가 무이숲에서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응원하며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푸르메문화워크 행사

넥스 마비노기와 함께 가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11일간 5,000여 명의 시민이 찾아와 공연, 체험, 전시를 즐기며 가치를 나눴습니다.

1월

5월

7월

10월

11월

12월

농장 증설

기존 1,200평에 더해 600평의 온실을 증축해 연간 생산량을 15톤 늘렸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의 자립도 한발 가까워졌습니다.



SK하이닉스 임직원 봉사

농장 건립에 큰 힘을 보탠 SK하이닉스 대외협력리더들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장애직원과 함께하며 진정한 사업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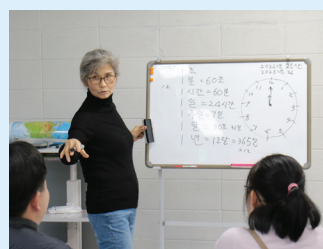
종무식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격려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장기자랑 시간도 가졌습니다. 매년 성장하는 직원의 모습에서 희망을 봅니다.



발달장애 직원의 자립을 돕는

푸르메소셜팜의 노력



장애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미술활동으로 시작한 푸르메소셜팜의 직원교육 프로그램. 직원 만족도가 높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생활교육부터 미술, 십자수, 탁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도우며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이 된 푸르메소셜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로 선정돼 여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 농부의 탄생이 기대됩니다.

배우 천우희의 특별한 하루



AM 10:00

천우희 배우, 푸르메소셜팜 방문

배우 천우희 씨가 푸르메소셜팜을 방문했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시라”는 말이 진심인 듯 청바지에 셔츠, 에코백을 둘러맨 가벼운 차림입니다. 업무 실습 차 왔던 장애 학생들이 천우희 씨를 알아보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우희 씨가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사인하고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PM 13:30

무이숲 시그니처 빵과 주스 만들기

이제 무이숲에서 ‘토마토 바질 치즈버거’와 ‘방토피자빵’을 만들어보기로 합니다. 우희 씨의 일일 베이킹 선생님은 베이커리부 에이스인 유림 씨입니다. 여주산 홍미(붉은 쌀)로 만든 빵에 바질 페스토를 바르고, 푸르메소셜팜 방울토마토로 만든 특제소스를 올려 포장까지 일사천리로 해냈지요. 뒤이어 커피부의 귀염둥이 성주 씨의 도움을 받아 무이숲 인기음료인 토마토주스와 사과주스도 만들어 봅니다. “토마토주스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료였어요?”라며 바쁘게 손을 움직입니다.



AM 10:30

방울토마토 수확

오늘 우희 씨의 첫 업무는 방울토마토 수확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은 온실로 들어서자 오늘 우희 씨 파트너로 뽑힌 수연 씨가 폴짝폴짝 뛰니다. “무척 만나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예뻐서 떨려요” 사이 좋게 바구니를 옮긴 수레를 끌고 가 ‘토마토 따기 달인’ 수연 씨에게 수확 방법을 배운 우희 씨가 빠르게 손을 움직입니다.



PM 15:30

메뉴 시식

온종일 쉴 틈 없이 일한 천우희 배우. 일을 마치고 오늘 하루 함께 손발을 맞춘 수연 씨, 유림 씨, 성주 씨와 무이숲에 모여 앉습니다. 직접 만든 토마토피자를 한입 베어문 우희 씨의 눈과 입이 한껏 열립니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 집에 가서도 생각날 것 같아요.”

햇살이 눈부신 어느 날. 그보다 더 환한 빛을 품은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며 두 팔을 하늘하늘 흔들립니다. 엉덩이를 들썩이며 기다리던 푸르메소셜팜 직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카페 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두 사람의 눈과 입도 쉬지 않고 서로를 향합니다.

“수연 씨는 뭐 좋아해요?”

“저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좋아해요.”

“진짜? 수연 씨가 노래를 잘 부르나 보다.”

“네!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요즘 연기도 배우고 있어요.”

“오! 정말요?”

“네! 영화(다큐멘터리 독립영화)를 찍고 있거든요.”

“와~ 수연 씨는 잘하는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가 봐요.”

“맞아요. 지인~짜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무더운 날씨에 땀으로 흠뻑 젖은 우희 씨. 힘들 법도 한데 흥이 오른 듯 “너무 재미있어요. 더 딸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AM 11:30

방울토마토 선별

수확한 토마토를 안고 온실 옆 가공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농작물의 선별과 분류, 세척, 포장 등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상품 가치에 따라 토마토를 선별할 겁니다. 우희 씨는 토마토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자신을 향한 주변 장애 직원들의 말들에 유심히 귀를 기울입니다.

PM 16:30

선물 증정 & 팬미팅

우희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무거워 보이는 상자를 잔뜩 들고 나타납니다. 직원들 선물로 선크림을 준비한 겁니다. 손수 선물을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 사인과 사진 촬영까지 함께 해줬지요. 팬미팅 자리 가라 할 정도의 열기가 30분 넘게 이어집니다. 이제 떠날 시간, 정이 잔뜩 들어버린 세 명의 직원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손을 꼭 잡아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본 우희 씨가 한 명씩 오래 안아주며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깁니다. 힘든 기색도 없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종종 와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하는 천우희 배우. 잊지 못할 또 하루가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 직원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푸르메 소셜팜에서 일하며

자립의 꿈 이뤄가는 발달장애 청년들

한 걸음씩 꿈을 이뤄가고 있는 광채 씨(24)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목표로 설립된 일터 푸르메소셜팜. 3년 전 첨단온실을 먼저 완공하며 1기 직원을 선발한 후 현재는 54명의 직원이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자 자립을 희망하는 직원이 늘었고, 지금까지 6명의 직원이 평생 머물던 장애인시설이나 가정에서 독립하여 자기만의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메소셜팜과 어주시,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이들이 살던 장애인시설이 협력한 덕분이지요. 한 걸음씩 꿈을 이뤄가고 있는 김광채(24)·이수연(31)·이섫별(22)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살림 고수 광채 씨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2년 전 직장동료와 함께 집을 구해 자립한 광채 씨. 그의 방은 침대와 4단 서랍장이 유일한 가구입니다. 단출하지만 서랍 칸칸이 광채 씨의 취향이 담겼습니다. 광채 씨는 소중히 여기는 인형부터 월급을 받을 때마다 1~2개씩 모아온 팽이들, 스티커 색칠 북을 차례로 꺼내 보여줍니다. 그보다 눈에 띄는 것은 완벽한 정리상태입니다. 꺼낸 물건들을 각 잡아 다시 넣는 모습이 신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활동보조사가 “빨래 개는 솜씨는 내가 배워야 할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넌지시 덧붙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레시피를 찾아 만든 요리라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군침이 절로 넘어가는 생김새입니다. “효진 형(함께 사는 직장동료)이랑 장을 보러 가요. 돈은 반반씩 내요.” 인터뷰하며 함께 집으로 이동하던 길에 나눈 대화 중 궁금증을 남겼던 대답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됩니다.

Q 자립해서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광채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요. 먹고 싶은 것을 직접 장 봐서 해먹을 수 있는 것도 좋아요.

Q 귀찮은 게 아니냐요? 그런 게 왜 좋아요?

광채 잘하니까요.

2년의 자립 생활 동안 광채 씨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자신감도 채웠습니다. 광채 씨 스스로도 놀랍고 행복한 변화입니다.

개성 뚜렷한 수연·섫별 씨의 방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던 수연·섫별 씨도 1년 전 함께 자립했습니다. “내 취향대로 꾸민 방은 처음”이라는 두 사람의 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진이 많은 수연 씨의 방에는 삶의 행복한 순간들이 녹아있습니다. 사진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언제 누구와 찍었는지,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이야기하는 수연 씨. “농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재밌어요. 이젠 넥슨 마비노기 직원과 저예요. 작년에 저희를 도우러 왔던 직원과 친구가 돼서 며칠 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좌 이수연 씨(31)·우 이섫별 씨(22)

섫별 씨 방에는 불박이장과 화장대 등 수납공간이 많습니다. 그 안은 분홍 계열의 옷과 소품들, 캐릭터 조명 등에 섫별 씨의 아기자기한 취향이 담겼습니다. 그중 ‘지출영수증’이라는 제목이 붙은 노트 하나가 눈에 띄니다. “쇼핑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과자랑 라면, 예쁜 액세서리를 많이 사요.”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자립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늘려가는 자유”

“요리를 잘할 수 있게 돼서 좋다”는 광채 씨, “가스 레인지 작동 방법, 쇼핑 방법, 카레나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섫별 씨, “허락을 못 받아 포기했던 미용 기술을 배우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것”이라는 수연 씨의 바람까지...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자립이란 ‘내 것’을 하나씩 늘려가는 자유입니다. 내 물건, 내 취미, 내 지식, 내 실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말이죠.

현재 직원들이 사는 이곳은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체험홈입니다. 일상의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진정한 자립을 위한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훈련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 시에서 자립비용을 지원받아 온전히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조정오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자립을 위해 취업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유리한 점이 훨씬 많다.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고 사회성도 키우고 성취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단 자립하면 시설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장애인은 없다는 조 소장의 말에 푸르메소셜팜 직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Q 시설로 돌아가면 어떤 것 같아요?

섫별 싫어요.

광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수연 자립 준비하던 중, 취소될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모든 게 다 행복해요.

장애가 있는 것이, 부모가 없는 것이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푸르메소셜팜 발달장애 직원들의 자유를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장애어린이와 장애청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3년 전 푸르메재단 사무실로 반가운 이가 찾아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FC 바이에른 뮌헨·28) 선수였지요. “장애어린이들이 잘 치료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지킴이가 되고 싶다”며 선뜻 푸르메재단에 손을 내밀어주었습니다. 그날 재단의 홍보대사가 된 김민재 선수는 처음 했던 약속 그대로 장애어린이의 재활과 장애청년의 자립을 돕는 지원군으로 한결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만큼 지난 3년간 김민재 홍보대사의 성장세도 눈이 부셨습니다. 특히 2023년은 그에게도, 응원하며 지켜보는 우리 국민에게도 잊지 못할 한 해였지요. 이탈리아 세리에A SSC 나폴리로 이적한 첫 시즌 뛰어난 실력으로 33년 만의 팀 우승을 견인하며 리그 최고수비수로 선정됐습니다. 곧이어 2023년 여름에는 축구 명가인 독일의 FC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응원

축구선수 김민재

푸르메재단 홍보대사·데미라클스 35호 회원

(사진: 대한 축구협회 제공)

세계를 무대로 뛰는 와중에도 김민재 홍보대사는 소외된 장애어린이와 장애청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은 장애어린이들이 성년이 된 후 사회의 한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기부하고, 푸르메재단 고액기부자모임인 더미라클스의 35번째 회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발목 수술을 받고 재활하던 어려운 시기에 기부하여 더 큰 감동을 주었지요.

김민재 홍보대사가 관심 갖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일입니다. 2022년부터 푸르메와 함께 ‘위드플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스포츠는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동하고 경쟁하면서 사회생활까지 경험할 수 있어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활동이지요.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시설과 기회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김민재 홍보대사는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행복을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꺼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많은 시민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었고, 2023년 10월에는 김민재 홍보대사가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당시 함께한 훈련소 동기들이 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위드플레이 캠페인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한 해 푸르메재단 산하 복지관과 스포츠센터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체계적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대한 축구협회 제공)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2024년은 모든 어린이가 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장애어린이와 장애청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정상의 실력으로 세계를 무대로 뛰면서도 우리 사회의 약자를 잊지 않는 김민재 홍보대사. 그 선한 마음을 기억하며, 푸르메 가족 모두가 김민재 선수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PART. 3

24

같이
성장

3

장애가족
지원사업

장애어린이 재활·의료 및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비 등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기존 사업 영역을 넘어 유니버설 디자인 벤치 제작,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했습니다.

총 사업비 2,073,292,835 원 총 대상 인원 1,498 명 / 3,500 기관

사회적응
자립 지원

장애어린이에게 보조기구 등을 지원해 재활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체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등 사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① 사업비 ② 지원자

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어린이 맞춤형 이동 및 자세 유지 보조기구 지원

① 771,594,800원
② 336명

정형신발 지원사업

보행 기능에 제한이 있는 어린이에게 맞춤형 신발 및 깔창 지원

① 4,350,000원
② 10명

25

CASE

임정린(가명) 양은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으로 몸통의 근력이 없고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어린이 전용 유모차를 지원받은 덕분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목의 힘이 향상되어 고개 가누기 등 신체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INTERVIEW

“근이영양증을 가진 동현이는 계속 근육이 짧아지고 약해져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은 뒤로 가족여행도 다녀오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도 마음껏 타고, 혼자서도 쉽게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등 독립적 생활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 보조기구 지원아동
윤동현(가명) 보호자





의료재활
지원

장애어린이가 적기에 알맞은 치료를 받아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① 사업비 ② 지원자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언어, 인지, 감각통합 등 급어·비급어의 다양한 재활치료 지원

① 140,441,000원
② 71명

이른둥이 지원사업

이른둥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치료 및 부모교육 지원

① 112,560,000원
② 36명

의료비 지원사업

수술비, 주사비, 치과치료비, 검사비 등 지원

① 14,200,000원
② 6명

희귀난치질환 지원사업

의료비, 약제비, 치료·보조기구 등 다양한 항목 포괄 지원

① 215,198,910원
② 71명

치과치료 지원사업

장애인 치과 치료 및 이동치과 진료봉사단 운영

① 265,103,150원
② 243명



CASE

김혜정(가명) 양은 20개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발음도 부정확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치료비를 지원받아 언어치료를 받으면서 3~40개월의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휘도 다양해져 원하는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일상생활에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INTERVIEW

“우현이는 생후 10개월 무렵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발작이 시작되면 종일 멈추지 않았죠. 힘든 나날이었지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알게 됐습니다. 푸르메재단 지원으로 의료비와 재활치료비, 특수분유 비용까지 걱정을 덜었어요.”

-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아동
정우현(가명) 보호자



교육·문화
·여가 지원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교육비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학업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① 사업비 ② 지원자·기관

장애가족 교육비
지원사업

장애어린이 및 비장애 형제·자매 등에 교육비 지원

① 131,976,355원
② 96명

장애가족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가족구성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기회 지원

① 80,498,000원
② 61명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발굴·지원

① 35,000,000원
② 5명

가족여행
지원사업

여행·나들이 등 장애어린이 가족의 문화·여가 활동 지원

① 119,961,620원
② 228명

문화공연 지원사업
(음악회)

장애어린이 가족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여가 기회 제공

① 7,000,000원
② 145명

장애인식
개선 사업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동화책 발간 및 배포

① 35,000,000원
② 3,500기관

장애가정 생필품
지원사업

장애어린이 가정 대상 양육 생필품 지원

① 58,500,000원
② 175명

장애인 일상변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벤치를 통해 장애·비장애인 간 상호 이해 증대

① 81,909,000원
② 15개

CASE

김혜은(가명) 양은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받아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성적이 5등급에서 2~3등급으로 올랐습니다. 푸르메재단의 지원은 혜은 양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학업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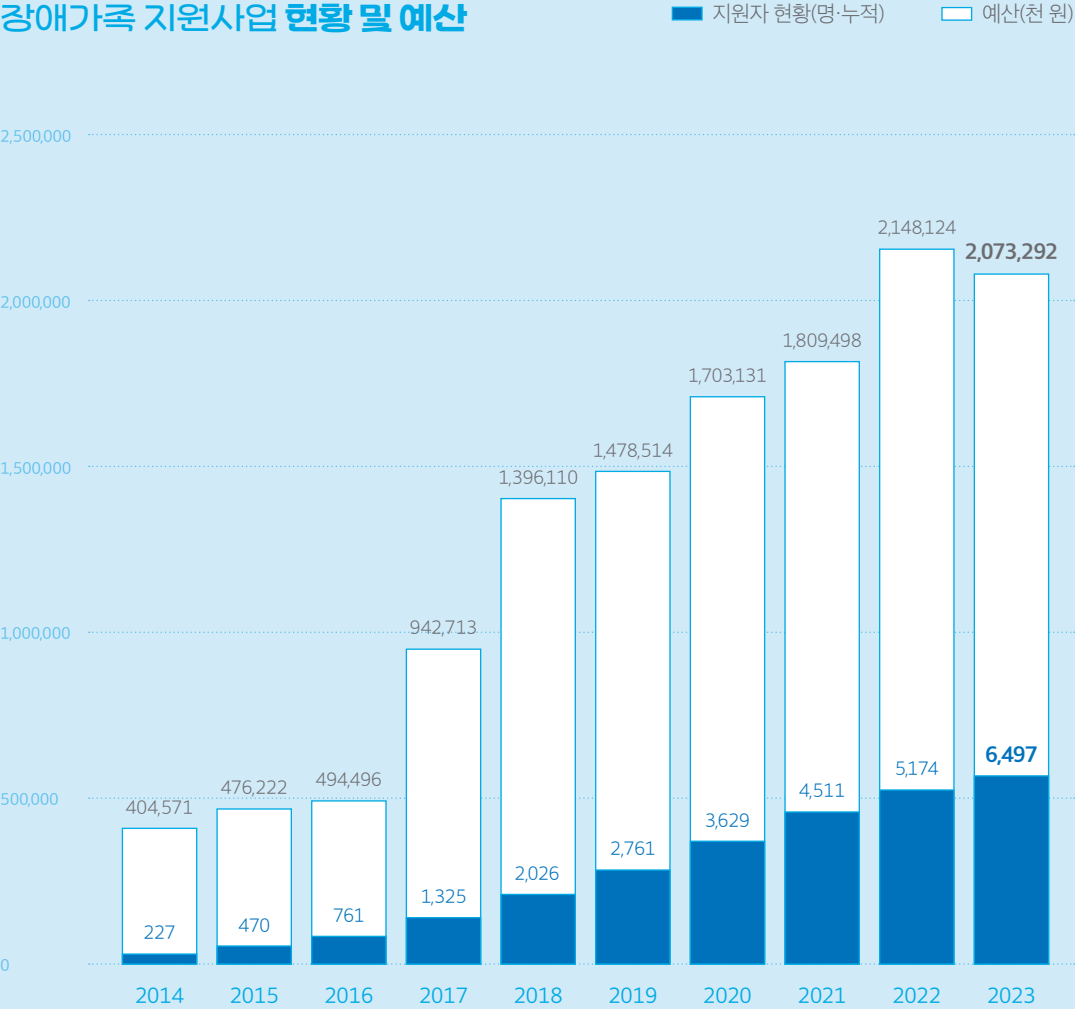


INTERVIEW

“은혁이는 부모의 관심과 돌봄을 받기 어려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동생들과 부모에게 힘이 돼주려는 따뜻한 아이였지만, 학교에서도 항상 위축돼 있었어요. 치료비 지원으로 음악치료를 받고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격이 밝아졌습니다.”

- 비장애형제 심리치료비 지원
박은혁(가명) 보호자

장애가족 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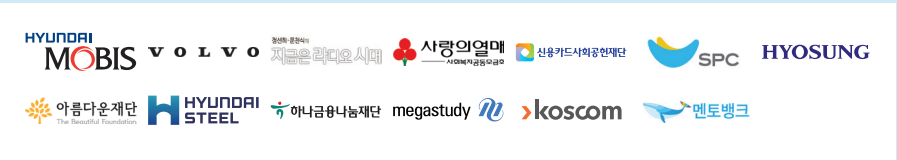


* 지원자 현황: 장애가족 생필품 지원 및 장애인식개선 사업 지원자 수 제외

지원
사업별
성과

사업내용	구분	2022년	2023년
사회적응자립	사업비(원)	731,476,000	775,944,800
	지원자(명)	332	346
의료재활지원	사업비(원)	896,864,465	747,503,060
	지원자(명)	437	427
교육·문화·여가	사업비(원)	519,783,157	549,844,975
	지원자(명)	4,405	4,225

함께하는
파트너



자신의 삶을 위해
첫발 내디딘

상현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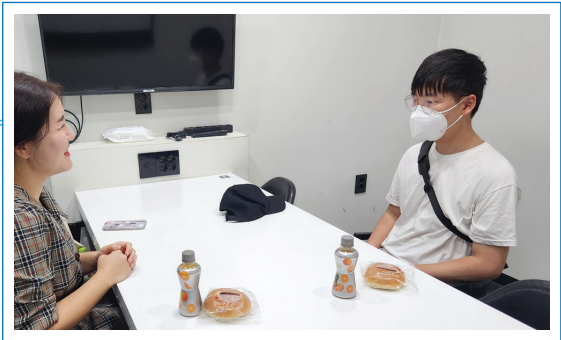
쌍둥이 형제인 상현이와 성현이. 한낱한시에 태어났지만 생후 6개월부터 두 아이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성현이는 목을 가누는 것부터 앉고 서고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상현이보다 느렸습니다. 엄마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입학 후에는 방과 후 성현이가 엄마와 함께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상현이는 할머니 손을 거쳐 아동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성현이가 사회에서 소외됐다면, 상현이는 집에서 소외됐습니다.

“상현이는 늘 칭찬받는 아이였어요. 성현이의 신변 처리를 돕고, 밥 먹을 때는 반찬을 올려주면서 살뜰히 챙겼어요. 밖에서는 손을 꼭 잡고 다녔죠.”

착하기만 했던 아이는 중학교에 들어간 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닫고, 집에 오면 침대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성현이와는 눈만 마주치면 싸워댔죠.” 2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두통, 복통은 일상이고 온몸의 통증을 호소했어요. 온갖 병원을 가봐도 이상이 없다는 말뿐이었죠. 마지막으로 찾아가 정신의학과에서 ‘스트레스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살려달라고 온몸으로 소리를 친 거죠.”

자녀의 장애부터 이혼, 경제적 어려움과 허리 디스크로 인한 건강 악화까지, 어려운 상황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엄마 영애 씨. 아이의 손을 끌고 병원과 복지관을 헤매던 끝에 장애인 가족 바우처로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으로 정해진 바우처 기간이 끝날 무렵 무겁게 닫혀있던 상현이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자비로 치료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포기 하려던 차에 푸르메재단을 통해 하나금융나눔재단의 심리치료비 지원을 받았지요. 상현이가 꿈을 말하게 된 건 그 덕분이에요.”



처음으로
꿈을 향해 가는
아이

상현이에게는 처음으로 목표가 생겼습니다. 컴퓨터를 공부해서 IT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 엄마는 성현이의 재활치료를 줄이고 대출까지 받아 컴퓨터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상현이는 목표로 하던 고등학교에 합격했지요.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엄마는 상현이가 자신의 꿈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상현이의 마음 한편에는 엄마와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자리한 것 같아요. 상현이가 의무감을 내려놓고 꿈을 찾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엄마인 제 꿈입니다.”

상현이는 이제야 꿈을 향해 첫발을 내딛습니다.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아이의 꿈이 스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주는 것, 우리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재활의료사업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2023년 스누젤렌실과 인지치료실을 확장하고 프로그램 및 장비를 보완해 작업치료 특화치료실을 조성했습니다. 어린이 보행재활치료 프로그램 '로보웨이'를 추진했으며, 장애어린이 가정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사업을 이어갔습니다.

두드림(DO-DREAM) 수행능력향상 프로그램

발달성 운동 협응 장애 증상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14명의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동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와 자기 효능감을 향상했습니다.

INTERVIEW

“지하철 타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정말 타게 되어 매우 기뻐요. 기차는 몇 번 타봤지만 지하철은 처음이었거든요. 기차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다른 점이 많아서 놀랐고,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망고젤리를 주셔서 더 놀랐어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니다.”

- 두드림 수행능력향상 프로그램 참가자
김영은(가명) 어린이

총 이용인원
77,190 명

재활의학과
41,478 명

정신학과
16,207 명

소아청소년과
16,171 명

치과
3,334 명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

어린이와 보호자가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전문적인 재활 및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각통합, 스누젤렌, 운동, 언어, 심리, 놀이, 부모교육, 인지학습, 사회성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동 발달 및 재활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보편적 지원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재활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필요한 치료를 적기에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치료에 장애어린이와 보호자가 지치지 않도록 심리상담 등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INTERVIEW

“치료 효과가 좋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비용이 부담돼 그동안 비급여 항목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치료비 지원 덕분에 필요한 치료를 잘 받았습니 다. 언어치료와 인지치료를 하면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 감동했습니다.”

- 재활치료 어린이 김현우(가명) 보호자

총 이용인원
8,145 명

운동
1,398 명

작업
1,229 명

언어
2,110 명

심리
832 명

감각통합
1,337 명

인지
783 명

스누젤렌
456 명



민간 최초 장애인 전문 치과로 2007년 개원해 장애인과 그 가족, 비장애인, 지역주민 등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치과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환경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치아 관리 및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향상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지원으로 발달장애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달장애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교육사업, 심리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치료비 지원 및 이동치과 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푸르메재단과 함께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8년부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외 장애인 생활 시설을 직접 찾아가 치과 치료 및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이용인원
831명

INTERVIEW

“사고로 수년간 입원하면서 이가 많이 상하고 풍치와 치통이 심했어요. 푸르메치과는 전통혈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진료실이 있어 좋았고, 친절한 의료진 덕분에 치료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치료 후 음식을 잘 먹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장명석(가명)



가족 프로그램 '우리 가족 추억 #1'

발달장애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사진을 촬영해 주는 '우리가족 추억 #1'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과 가족에게 친숙한 종로아이존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해 장애어린이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INTERVIEW

“다른 기관에서는 참여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프로그램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참여하면서 아이의 새로운 모습과 성장 가능성을 봤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어요. 휴일에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종로아이존 이용 아동 부모
이희진(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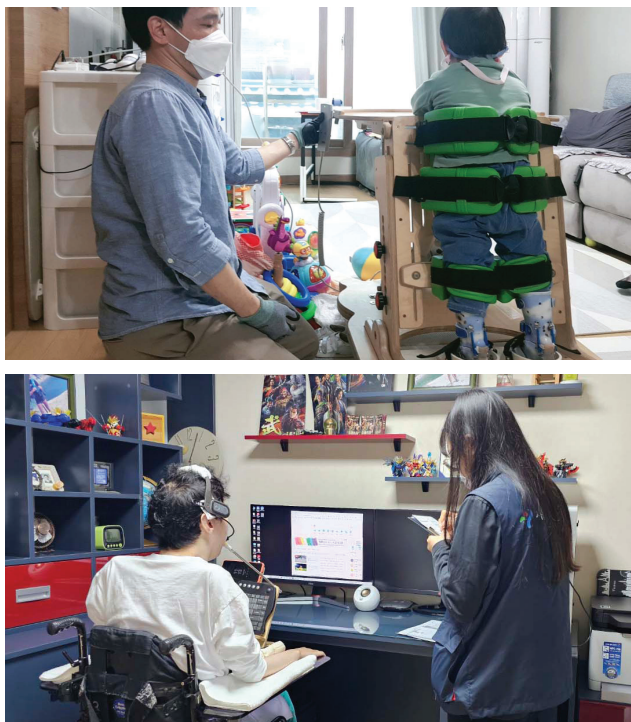
총 이용인원
9,411명

재활치료
7,508명

가족지원
688명

교육·연계
772명

행사·연구
443명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왔습니다. 재가장애인, 탈시설장애인 등 보조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저소득 가정의 희귀질환 아동 60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44명의 재가장애인에게 맞춤형 IT보조기기를 제공했습니다. 장애인 가정 내 생활편의를 위한 IoT 환경을 구축하고, 가정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첨단 재활보조기기도 지원했습니다.

INTERVIEW

“높은 가격 탓에 구입하지 못했던 캐럿카시트를 지원받아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이와 매일 2시간 이상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캐럿카시트가 아이 몸이 비스듬히 기울어 지거나 목이 꺾이지 않도록 잘 잡아주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대상자
김해성(가명) 보호자

총 이용인원
83,484 명

보조기기 임대
76,474 명

제작·개조·수리
324 명

소독·세척
208 명

무상지원
201 명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양재, 목재,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제작 서비스로 장애인의 보조기기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의류, 가방 등을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류 리폼 사업, 시각장애인 가방 지원 사업, 스마트 호흡훈련기 보급사업 등을 시행했습니다.

장애인의류 리폼 및 가방 지원 사업

옷을 입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각자의 신체 특성에 맞도록 옷을 수선해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52명에게 총 200벌을 지원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13명에게 맞춤형 백팩을 제공했습니다.

INTERVIEW

“교통사고로 지체장애를 얻은 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에서 심층 상담을 거쳐 목욕의자와 컴퓨터 키보드를 정확하게 누를 수 있는 키가드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 기쁩니다.”

-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자
김지훈(가명)

총 이용인원
58,742 명

보조기기 임대
57,678 명

제작·개조
396 명

소독·세척·수리
396 명

무상지원
272 명

푸르메 십년지기

INTERVIEW

권은영 기부자 가족



권은영 기부자 가족은 푸르메재단의 십년지기입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은영이는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라는 희귀질환으로 다섯 살부터 푸르메재활의원(現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에서 7년, 2016년 개원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소아재활 2년과 청소년재활 1년까지, 길고 힘겨운 재활생활 10년을 푸르메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푸르메재단의 손을 놓지 않은 고마운 기부자이기도 합니다. 2012년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 건립 소식을 들은 엄마 효선 씨는 가족 네 명의 이름으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양가 조부모

까지 가족 3대가 장애어린이 지원군으로 총출동했지요. “병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어요. 은영이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어린이가 대기 없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은영과 영진 남매는 완공 후 문을 연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의 기부벽에서 자신과 가족들 이름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효선 씨는 “이제껏 다닌 재활시설들과 달리 넓은 공간에 빛이 가득 들어찬 것을 보면서 이 멋진 병원을 짓는 데 타일 두세 개쯤은 보탬다고 생각하니 참 뿌듯했다”며 그때의 행복을 추억합니다.

또 다른 의료 사각지대 ‘청소년 재활’

2년 전 중학생이 된 은영이는 새로운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어린이 재활이 가장 소외되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청소년 재활은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은영이처럼 운동성 장애를 가진 이들은 청소년기에 급격한 성장으로 근육 변형과 함께 여러 근골격계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 이 시기의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재활치료기관에서는 청소년 재활을 다루지 않고, 성인 재활치료는 다수를 차지하는 후천적 장애 위주의 치료라 선척적 장애를 가진 은영이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적절한 기관을 찾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료에 공백이 생기면, 그 사이 척추측만증 등으로 근육과 골격이 빠르게 변형되면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요. 오랜 재활치료가 물거품이 된다는 좌절감이 크죠. 청소년 재활 분야는 또 다른 사각지대예요.”

국내 복지의 고질적 문제인 통합시스템의 부재는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아든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에게 짐을 지우고 또 지웁니다. “장애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가 찾아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해요. 치료와 활동, 학습 등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전문적인 컨트롤타워가 절실해요.”

마음 깊이 간직해온 은영이의 꿈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반이 있는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은영이. 맞춤형 교육을 받기 위한 선택이지만 매일 매 순간이 고비입니다. 친구들이 1~2시간이면 끝낼 과제를 은영이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을 채찍질하며 2~3일간 씨름해야 합니다. 언어소통이 쉽지 않아 앞에 나가 발표를 하는 것도 큰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지요. 장애를 이유로 적당히 타협할 법도 한데, 은영이는 치료와 운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도 숙제를 마칠 때까지 잠드는 법이 없습니다.

“은영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1번 공부 재미있어서, 2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3번 그냥?”

씩 웃더니 “2번”이라고 얘기한 은영이. 힘겹게, 그러나 어느 대답보다 정확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은영이가 내뱉은 단어는 ‘작가’와 ‘화가’입니다. “시를 쓰고 싶어요.”

가슴 깊이 키워온 은영이의 꿈이 처음 세상 빛을 본 순간 ‘장애’라는 현실이 잠시 물러나고 ‘재능’이라는 희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2021년,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개원 5주년을 맞아 열린 어린이 그림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받았던 은영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7주간 진행한 장애인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가장 큰 성장을 보인 교육생이라는 평도 받았답니다. “은영이는 상체 근력이 약해서 가로줄 하나를 온전히 그리기도 쉽지 않은데, 결국 일정 안에 작품 하나를 완성해냈어요. ‘흔들리는 붓선’도 개성이라고 얘기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화가라는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아요.”

아름다운, 푸르메의 오랜 친구

오빠 영진은 은영이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장애로 또래 친구를 사귀기 힘든 동생을 위해 수업이 끝나면 부지런히 집에 오고, 눈 오는 날이면 은영이를 반짝 안고 나가 하얗게 덮인 세상을 보여주곤 했지요. 그런 영진의 응원 은은영이에게 늘 큰 힘입니다.

은영이가 숙제와 씨름할 때마다 곁에서 함께 싸워주는 엄마 효선 씨, 그 치열한 삶 속 일상의 구멍을 셀 틈 없이 메꿔주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장애어린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기부 의지를 불태우는 아빠, 손녀를 위해 고령에도 나눔을 결심한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의 헌신과 사랑을 거름 삼아 피어난 은영이의 웃음은 한낮의 햇빛처럼 찬란합니다.

‘오래된 친구보다 좋은 거울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처럼 빛나고, 봄처럼 향기로운 은영이네 가족이 푸르메재단의 오래된 친구라 참 다행입니다. 푸르메도 오랜 친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주도성을 높이는 개인 맞춤형 지원과 사람 중심 실천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유공간과 자원을 활용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했습니다. 친환경 활동,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장애인 디지털 직무개발 등을 새롭게 시도하거나 확대했습니다.



 과천시장애인복지관
Gwacheo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지역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과 자립을 위한 상담, 치료, 직업, 교육, 문화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장애당사자의 삶 속에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찾는 취미활동 프로그램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나에게 꼭 맞는 취미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찾아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지역사회 속 다양한 취미 공간과 연대해 활동함으로써 직업역량개발훈련 공간을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도성을 키웠습니다.

INTERVIEW

“예술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용기 내어 우리 공방에 찾아온 발달장애인 청년분들이 반가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쉬운 말로 설명해야 하는 점만 다를 뿐 여느 수강생과 똑같이 자기 작품에 몰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요.”

- 폰테캘리그래피공방 운영자 김여중

총 지원인원
184,513 명

직업 지원
10,816 명

교육·치료 지원
121,435 명

가족 지원
36,181 명

지역연계
16,081 명

특별한 일상, 특별한 만남

장애주간 행사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정은혜 작가의 일상을 담은 영화 <니얼굴>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장애·비장애 주민이 함께 감상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모습에 공감했습니다. 상영 후 정은혜 작가, 영화 감독 등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했습니다.

INTERVIEW

“장애주간 행사 ‘잇다’에서 보통의 삶에 포커스를 맞춘 다양한 행사가 열려 재미있었어요. 특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정은혜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무척 신났습니다. 장애 주간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장애주간 행사 참여자 강지혜

총 지원인원
146,196 명

직업 지원
5,095 명

교육·치료 지원
55,446 명

가족 지원
12,166 명

지역연계
73,489 명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인 삶과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직업, 교육, 문화여가, 치료, 사례관리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합니다. 복지관 주요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종로 스마트 복지관 사업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불편과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종로구청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쌍방향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방문교육지원', '종로 스마트 활동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높이고, 한 해 760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INTERVIEW

“장애가 생긴 뒤로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스마트폰 쓰는 것도 어려웠는데, 디지털 기기 교육에서 많은 내용을 배워 좋았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분이 곁에서 도와줘 교육을 수월하게 받았고, 수업 내용 외에 평소 궁금했던 기능도 물어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쌍방향 온라인교육 참여자
서찬민(가명)

총 지원인원

38,474 명

직업 지원

8,743 명

교육·치료 지원

8,742 명

가족 지원

10,295 명

지역연계

8,478 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장애인체육시설로서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 마포구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연계 체육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장애인과 건강 약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한 생존수영

지역 연계 체육사업의 하나로 마포구에 있는 하늘초등학교, 한국우진학교와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지체·뇌병변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중기법을 적용해 전문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INTERVIEW

“4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우울증으로 3개월간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 권유로 수중재활 프로그램과 어울림건강교실에 참여하면서 활력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제 삶에서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 성인수중재활 프로그램 참가자
장원식(가명)

총 지원인원

82,656 명

재활체육

47,630 명

통합체육

35,026 명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책을 읽으며 성장하는 도서관입니다. 2023년에는 도서관 환경 및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지역 기관과 공모 사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전년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사서 선생님과 책 읽기

일회성으로 진행됐던 '사서 선생님과 책 읽기' 프로그램이 이용자들의 요청으로 매월 1회 15명의 아이가 함께하는 정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만화책에만 흥미를 갖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의 재미를 알려주고 도서관을 더욱 친근한 공간으로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읽어준 책은 평소 잘 읽지 않는 이야기여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며 독후활동(만들기)을 즐겁게 하고 나니 그 책을 다시 읽고 싶어졌습니다. 요즘 학습만화에만 빠져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다양한 책을 읽게 됐어요.”

- 사서 선생님과 책 읽기 프로그램 참가자
이고운(가명)

총 지원인원
83,923명

도서열람
47,509명

도서대출
32,768명

독서문화프로그램
3,646명



자립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경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발달장애인 디자인을 활용한 패션자수 소품 제작, 열수축포장기계를 이용한 포장작업, 직업 재활 서비스,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 복지 프로그램, 사회참여 활동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체브랜드 '아텐토' 제품 매출 증대

토끼자수 파우치와 에코백, 친환경 리유저블백 등 아텐토(ART'NTTO)의 디자인 상품 5가지를 론칭해 판매하면서 매출이 전년도 대비 180% 증가했습니다. 수익 개선으로 이용장애인에게 성과급을 50만 원씩 지급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수학적 사고 길들이기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공했습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고 다양한 수학 게임을 해 재미를 느끼게 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후 나눠주는 활동지를 집에서 함께 풀어보며 수학적 개념을 더 향상할 수 있었어요. 어렵더라도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 고맙습니다.”

- 수학적 사고 길들이기 프로그램 참가자
박진우(가명) 보호자

총 지원인원
7,730명

직업지원
5,148명

교육지원
2,582명



PaNiS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파니스

보호된 작업환경 안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일하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이 직장생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이용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매 활성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제품을 홍보해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제약회사 한미약품의 사내 카페에 정기적으로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온라인식품관 ‘투홈’에도 입점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인근 지역축제에 참여해 파니스 카페와 제품을 알렸습니다.

INTERVIEW

“파니스로 기관 방문을 왔을 때 모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카페와 제과제빵 작업장이 멋져서 여기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 후 학교와 시설 선생님의 소개 덕분에 정말 파니스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년에는 우수직원상을 받고 싶어요.”

- 예비 바리스타 이성재

총 지원인원
21,520명

직업지원
21,221명

교육지원
299명



행복한 베이커리
카페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음료 제조부터 서비스, 매장 관리, 고객 응대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바리스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신메뉴 개발, 케이터링 사업 재개 등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매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바리스타 직무교육 및 케이터링 사업 재개

커피 트렌드, 원두 테스트, 핸드드립 음료 제조 등 바리스타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점장 2명이 국제바리스타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기업·단체의 행사, 세미나 등 현장에 장애 바리스타 직원이 방문해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는 케이터링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INTERVIEW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2023년에는 손님이 많아져 종일 바쁘지만 무척 신났습니다. 손님들이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고 맛있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싶을 정도예요. 점장님과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카페를 만들겠습니다.”

- 바리스타 구정환

총 지원인원
4,450명

직업지원
4,200명

교육지원
250명

푸르메의 오랜 친구이자 든든한 후원자



이정모 펠릭스과학관장
더미라클스 20호 회원

푸르메재단이 설립된 후 재단의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마운 분들을 꼽자면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지만, 그 가운데 이정모 펠릭스과학관 관장은 벌써 12년째 기부를 이어오는 푸르메의 오랜 친구이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그는 대학교수에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서울시립과학관장을 거쳐 비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을 지내고 지난해 퇴임했습니다. 지금은 펠릭스과학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사무실을 열고, 대중과 과학 사이를 메우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요.

우연히 시작된 인연

이 관장과 푸르메의 인연은 백경학 대표와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데다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동안 만난 적도 없고 서로를 전혀 몰랐다고 해요. 2012년 그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때 백경학 대표를 만나면서 재단의 정기기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민간단체가 병원을 짓는 건’ 무모하다’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저는 의심한 적이 없어요.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믿었죠. 실제로 개원했을 때 가보니 병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치료받는 아이들, 그리고 병원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 병원이 전국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로 정부가 이 병원을 모델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짓기 시작한 것을 보며 기부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이 관장은 기부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푸르메와 함께 했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이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백경학 대표와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북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설치했던 ‘회오리모금함’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회오리모금함은 ‘케플러의 제2법칙’을 활용한 동전 모금함입니다.

“회오리모금함에 동전을 던지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 보고 있으면 무척 흥미로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하듯 재미로 동전을 넣죠. 모금함 옆에 적힌 ‘장애어린이를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놀이처럼 반복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쌓이죠. 저는 아이들이 기부를 그렇게 배워야한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삶 속에 스며들듯 자연스럽게요.”

1억 원은 아깝지 않은 인생 수업료

이 관장은 2018년 푸르메소셜팜에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푸르메재단 고액기부자 모임인 ‘더미라클스’의 20번째 회원이 되었습니다. 푸르메재단 홍보대사인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의 강연을 듣고 크게 감동해 기부를 결심했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바로 1,000만 원을 기부했

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1억 원 기부를 약속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다가 지인들의 말을 듣고 알게 됐어요. 교회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저를 칭찬하고, 친구들도 ‘너는 10년간 술값 내지 마라’며 어깨를 쳐주니 별 수 있나요. 어떻게든 기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이 관장은 지난해까지 1억 원을 완납하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꼭 5년이 걸렸지요. 그동안 이 관장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두 자녀를 둔 가장이기에 월급에 손을 댈 수는 없고, 강연료와 인세 등에서 기부금을 만들었습니다. “기부하느라 지난 5년간 인생에서 가장 많은 강연을 했다”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과학관장 업무에도 충실해야 했기에 아침 7시 15분에 출근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관장평가에서 매년 최고등급(5등급)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어떻게 보면 관장으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시기였는데, 저는 가장 치열하게 살았죠. 돌이켜보니 본의 아니게 약속한 ‘1억 원 기부’가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책을 쓰고 강연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거든요. 1억 원은 아깝지 않은 인생 수업료였습니다.”

이 관장은 더미라클스 회원들과 함께 푸르메소셜팜을 찾아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예상보다 훨씬 멋진 농장 모습에 깜짝 놀랐지요.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체계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각자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맡아 일하게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농장을 방문할 때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사무관과 동행했어요. 농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토마토를 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사무관에게 ‘아이를 평생 데리고 살 수는 없다. 언젠가는 부모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데, 너무 겁먹지 마라. 이런 일터를 정부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사무관도 푸르메소셜팜과 일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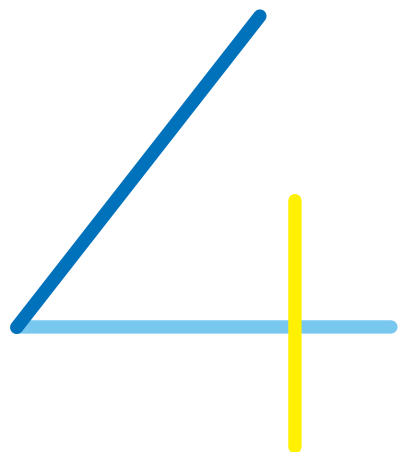
이 관장은 푸르메재단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푸르메소셜팜은 발달장애 청년의 일터로서 좋은 모델이 됐어요. 어린이재활병원이 그랬듯,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터도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어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해 다음 사업을 고민하고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함께 나눔

2023년에도 푸르메재단은 장애어린이의 재활과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해 힘껏 달렸습니다. 그 곁에서 많은 기부자님이 함께 뛰어주셨기에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지요. 특히 올해는 개인기부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푸르메천사가게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기부 바자회를 연 송의초·거창고 학생들이나 자선 갈라디너 행사를 개최한 6명의 셰프 등 많은 분이 자발적인 기부 프로젝트로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미라클365 푸르메런'이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500명의 러너가 함께 호흡하면서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달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즐겁게 기부에 참여하고 응원하는 분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푸르메재단을 믿고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부자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2024년에도 소중한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협력팀/마케팅팀 일동



총 모금액

8,387,012,770 원

총 기부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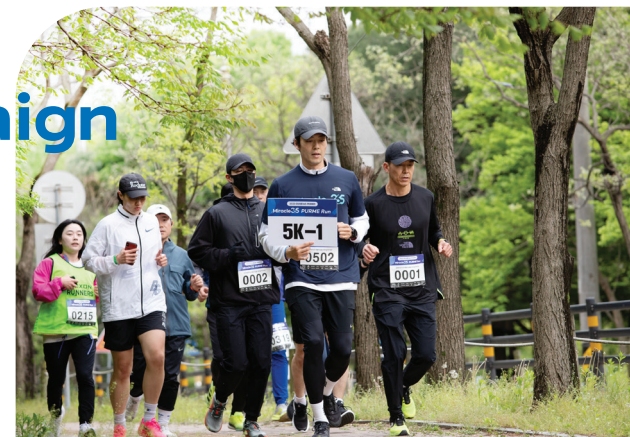
개인기부자 16,468 명

기부 기업 159 개

더미라클스 회원

총 40 명(신규 회원 2명)

2023 Purme Campaign with You



장애어린이를
응원하며 달린

미라클365
푸르메런

2023년 4월 29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개원 7주년을 기념해 '미라클365 푸르메런'이 무려 4년 만에 오프라인 대회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비대면으로 대회가 진행되었지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러너들의 반가운 인사와 열기로 현장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대회 시작 전 흠뻑 땀을 흘린 사람들 시선이 한곳에 모이더니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가수 선과 함께 배우 박보검 씨가 히든 러너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지요. 평소 선의 러닝메이트이자 장애인을 돕는 데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날 500명의 러너와 발을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무사히 완주해 장애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해달라”는 선 홍보대사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8km 코스 참가자들이 먼저 뛰어나갑니다.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를 한 바퀴 돌아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으로 향하는 코스. 500인 러너가 한 줄로 길게 늘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튼튼한 동아줄 같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남은 힘을 전부 쥐어짜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들, 어린 딸의 유모차를 밀며 완주한 가족들, 발달장애를 가진 사춘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똘 엄마까지 땀 범벅이 된 얼굴에 완주의 기쁨이 가득 번집니다.

러닝 후에는 또 다른 신나는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바로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3층 김정주홀에서 열린 미니콘서트! 가수 김범수의 재능 기부로 감미롭게 시작한 콘서트는 가수 선의 공연으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500인의 러너는 치진 기색도 없이 함께 노래하고 신나게 뛰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선 홍보대사는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문을 연 지 7주년이 됐음에도 그 어려움에 공감하고 끝까지 함께 뛰며 열정을 불태운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러너들이다. 장애어린이들이 사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땀 수 있도록 오래 함께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7년간 한결같이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뛰고 선한 뜻을 걸음 곳곳 퍼트린 500인의 아름다운 러너를 푸르메가 늘 응원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펼친 큰 날개 푸르메천사가게

푸르메천사가게는 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와 장애청년의 자립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온라인쇼핑몰 등 매장 이름으로 기부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참여할 수 있지요. 2023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겨우 벗어난 한 해, 놀랍게도 148곳의 가게가 푸르메천사가게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풍요롭지 않아도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멈추지 않고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기부자의 마음이 온기를 전해주었지요. 2024년에도 미용실,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장애어린이를 응원하는 마음이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한강 선상에서 마음을 나누다 꽤 괜찮은 토크콘서트

푸르메재단의 든든한 두 얼굴 선, 이지선 홍보대사가 기부자들과 소통하는 ‘꽤 괜찮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강 선상에서 가진 기분 좋은 만남이었지요. 나눔에 대한 강연과 바이올린 공연, 참여자들의 진솔한 대화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선 홍보대사는 진솔한 목소리로 자신의 기부 이야기를 전하며 감동을 주었고, 이지선 홍보대사는 사고에서 입은 화상과 그 아픔을 극복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 참가자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습니다. 토크콘서트 말미에는 선 홍보대사의 깜짝 힙합 공연도 열렸지요. 참가비는 전액 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 나를 응원해 주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되어보세요.”



일상의 기적을 나누는 미라클데이

미라클데이 캠페인은 일상의 작은 기쁨을 기념합니다. 많은 기부자가 ‘내 생애 첫 풀코스 마라톤 완주’, ‘응원하는 야구팀의 마지막 경기 기념’, ‘그냥 날이 좋아서’ 등 일상에서 찾아낸 나만의 행복을 장애인과 함께하고자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미라클데이 그립톡’ 굿즈를 제작해 기부자들이 가족, 친구,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선물했습니다.



러너들의 열기를 기부 에너지로 2023 대전 트레일 온런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동아일보사가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해 대전광역시 국립대전현충원 및 갑하산 일원에서 2023 대전트레일온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트레일런동호회 회원, 대전시민과 도시가스회사 임직원 등 1,700여 명이 참여해 참가비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송재호 도시가스협회장은 “앞으로도 발달장애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돕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어린이를 위한 11년의 동행 마이크로 패밀리 킥앤런

마이크로 키보드와 푸르메재단이 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를 응원하는 ‘마이크로 패밀리 킥앤런’ 행사가 550가족, 1,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2013년부터 11년째 이어진 뜻깊은 행사로, 해마다 재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키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린이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함께하는 이웃

한 해 동안 푸르메재단이 달려온 길, 옆에서 손잡아주신 분들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기부자님들. 그 빛나는 마음을 거름 삼아 장애인과 그 가족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이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플루트부케는 ‘한 송이의 꽃보다 부케가 더 아름답듯이, (음악과 사람도) 함께 어우러졌을 때 더 아름답다’는 의미를 담아 2016년에 창단했습니다. 매년 공연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왔지요. 올해 열린 일곱 번째 공연의 수익금을 장애어린이와 장애청년을 위해 써달라며 푸르메재단을 찾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플루트로 인해 만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쓴 이야기로 삶이 풍성해졌다는 이들. “장애어린이들이 꿈을 갖고 그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경험을 해보길 바라요. 그 길을 저희도 돕겠습니다.”



저마다의 향이 모여
더 아름다운
플루트부케



학교가 틈을
나눔 새싹들
거창고등학교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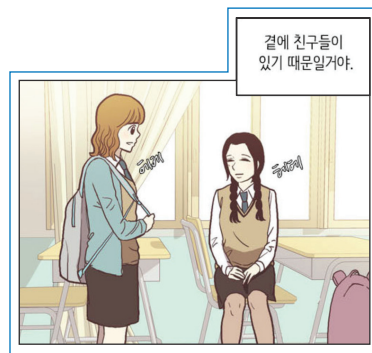
거창고등학교는 봄부터 겨울까지 학생회 주도로 예술제, 봄 소풍, 기부바자회 같은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그중 매년 12월 열리는 ‘한마음 타’는 벌써 60년 이상 이어진 기부 바자회로, 거창고 교육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기부한 물품으로 재활용 장터를 열고, 1·2학년이 반별로 음식장터나 카페, 경매 등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모인 수익금을 매년 전교생 투표를 거쳐 기부하지요. 학교 교육에서 얻은 깨달음과 치열한 고민, 노동과 나눔을 통해 소중한 기부금을 모아준 거창고 학생들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알뜰시장으로
즐겁게 기부하는
송의초등학교 재학생



2023년에도 어김없이 기부바자회인 ‘알뜰시장’을 열어 그 수익금을 들고 푸르메재단을 찾아온 송의초 학생들. 2013년부터 벌써 10년째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재밌어야 한다’는 담당 선생님의 생각 아래 시작되었지요. 알뜰시장을 위해 판매할 물건을 선택하고, 알맞은 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알뜰시장은 이제 송의초 학생 모두가 기다리는 축제가 되었지요. 어제의 배움과 오늘의 나눔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아이들의 마음속에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특별함이
빛나는 세상을 위해
웹툰작가 모랑지



9년간 네이버 월요웹툰 상위권 자리를 지켜온 <소녀의 세계>의 모랑지 작가. 2018년부터 푸르메재단에 기부해 온 오랜 기부자입니다. 온라인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에 어린이 재활병원이 거의 없다는 것, 그 심각성이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잘 유지해달라”는 작은 바람을 함께 전했지요. 모랑지 작가는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각자가 그 자체로 인정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장애에 가려졌던 각자의 특별함이 빛을 발하는 세상이 오길 기다려요.”

푸르메 천사가게
고범진
BF어린이치과 원장

2011년 푸르메재단과 인연을 맺고 7년간 치과 봉사로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졌던 고범진 BF어린이치과 원장. 3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어린이치과를 개원한 그는 곧장 푸르메 천사가게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고 원장은 신장 질환이 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장애인의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치아는 인간의 기본권인 먹는 것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해결해주고 싶어 노력했어요.” 기부는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고 원장. 앞으로도 오래 푸르메의 좋은 친구가 돼주세요.



장애어린이를 위해서
요리하는
셰프 삼촌들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전하는 파인다잉 레스토랑 ‘주옥’. 그 마지막을 기념하며 국내 장애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FAREWELL 자선 갈라 디너’ 행사를 열었습니다. ‘밍글스’, ‘모수’, ‘임프레션’, ‘루이쌍끄’, ‘산’ 등 국내 최고로 꼽히는 레스토랑의 셰프, 매니저, 소믈리에가 힘을 합쳤지요. 주옥의 신창호 셰프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은 기금이 장애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펼칠 주옥의 새로운 도전도 푸르메 가족이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업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장애어린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나눔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한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덕분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과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에서 많은 장애어린이가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응원합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주간 기념 캠페인을 펼쳐 모은 기금으로 장애어린이를 위한 운동재활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관절과 근육의 힘이 부족해 자유로운 신체 사용이 힘든 장애어린이들이 운동재활치료를 통해 움직임이 강화되고 유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여 장애어린이를 위한 힘찬 걸음이 되었습니다.



(주)현대퓨처넷

2021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며 푸르메재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부모 심리상담 지원, 푸르메소셜팜 설비 지원, 무이숲 디지털 사이니지 지원, 현대백화점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푸르메소셜팜 홍보 지원까지 꾸준히 나눔을 이어왔습니다. 현대퓨처넷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레고코리아(주)

지난 여름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형제·자매, 푸르메재단 산하기관의 장애직원에게 깜짝 선물을 하고 싶다는 레고코리아가 찾아왔습니다. 레고를 활용한 놀이는 정서 안정과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인지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기에 매우 기쁘고 고마운 만남이었습니다. 푸르메재단과 산하기관 총 8개 기관에 1,712개의 레고를 선물했습니다.



1억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믿을 수 있는 푸르메

INTERVIEW

박재홍 CBS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푸르메재단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데뷔가 2004년, 푸르메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게 2005년이니 말입니다. 벌써 20년이나 된 오랜 인연이지요. 2005년 푸르메재단이 설립되고 CBS라디오에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 강지원 변호사, 백경학 상임대표와 방송을 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재단이 개최한 ‘희망으로 한걸음’, ‘희망 더하기’ 등 콘서트의 진행을 맡고, 연탄나눔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행사 사회를 보러 갔을 때, 몇 년 만에 만난 김성수 주교님과 강지원 변호사님이 ‘박 아나운서, 아직도 사회 봐?’라며 반갑게 말씀을 건네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신입 아나운서였던 제가 어느덧 중견 아나운서가 됐고 아나운서실 부장까지 역임했지만, 20년 전의 초심 그대로 푸르메와 함께해왔다는 게 느껴져서 ‘앞으로도 이 분들과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해 온 분들이 여전히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서 계신 모습을 볼 때의 기쁨도 컸습니다.”

박 아나운서는 15년 넘은 재단의 정기기부자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눈빛, 계획을 넘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을 보면서 ‘무엇이든 푸르메가 하면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재단’이라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되었을 때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다’는 생각과 함께 여기까지 달려온 모든 푸르메 구성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최근 건립한 푸르메소

설팠을 보면서 단순히 장애인을 돕는 것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느껴져서 믿음이 더 강해졌지요.”

박 아나운서는 푸르메재단 외에도 인권단체, 아동단체 등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 회사, 사회에서 받아온 혜택을 조금이나마 이웃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가장 쉽고 꾸준히 나눌 방법이 소액 정기기부라고 생각해요. 아메리카노 커피 몇 잔을 한 달에 한두 번 나눈다고 생각하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나눔으로 장애어린이와 장애청년의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길 바라는 박재홍 아나운서. 꿈을 향해 힘든 재활치료를 이겨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장애어린이와 장애청년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크기만큼 펼쳐집니다. 매일 치료받는 장애어린이는 물론 자립을 위해 귀한 땀을 흘리고 있는 청년 한 분 한 분의 삶에 매일 아름다운 꿈이 펼쳐지고 그 마음과 생각의 크기가 나날이 크고 새로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재홍 CBS 아나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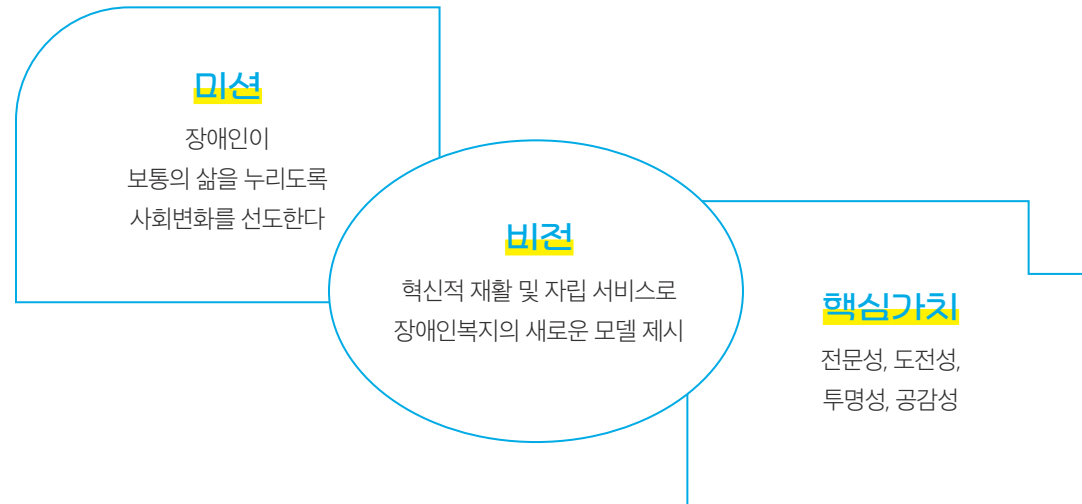
PART. 5



푸르다, 푸르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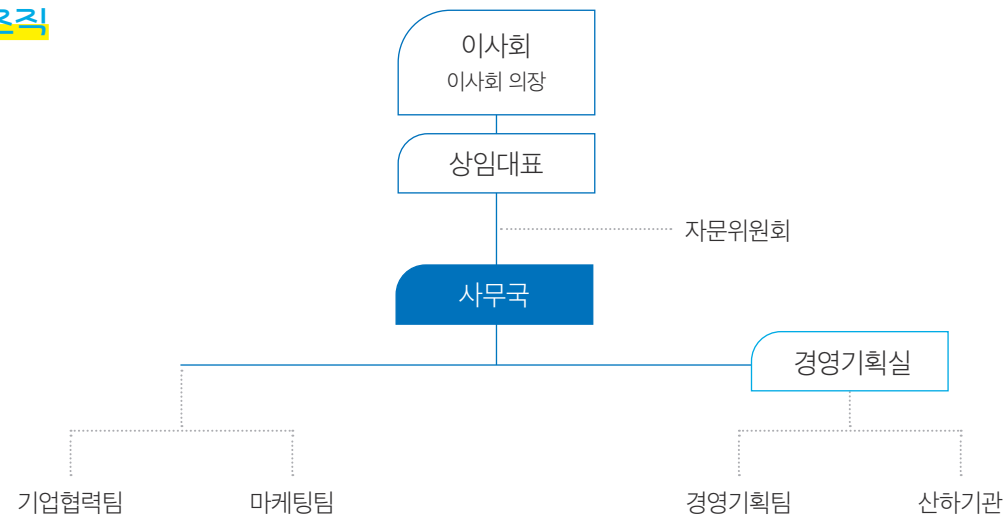
푸르메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주요사업

- 재활의료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펼칩니다.
- 장애가족지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까지 가족 단위로 통합 지원합니다.
- 지역복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도록 돕습니다.
- 자립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조직



이사회

푸르메를 이끌어 갑니다.



명예이사장 김성수
성공회 주교/
우리마을 총장



이사장 강지원
변호사



공동대표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공동대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 변호사



상임대표 백경학
前 CBS,
동아일보 기자



감사 김문규
태울회계법인 이사



감사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사 원택 스님
해인사 백련암 주지



이사 김용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사 김종구
세신교회 담임목사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사 백은령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사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보대사

푸르메의 가치를 알려 나갑니다.



선
가수



김민재
축구선수



이지선
작가·교수



이정후
야구선수



이종범
야구코치·
前 야구선수



엄홍길
산악인



서경덕
홍보전문가



이근호
축구선수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사업 운영에 대한 지혜를 모읍니다.	이종수 위원장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이용숙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은애 청년사회적경제지원단체 씨즈 이사장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동건 울산MBC 사장 정재권 KBS 이사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
지원심의위원회 장애가족지원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을 심사·선정합니다.	강용원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센터장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 김남욱 연세나무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지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치료실장 김희정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차장 문상진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센터장 민여진 스마일재단 前 국장 박대운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담당관 박미혜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前 사무국장 박유경 종로아이존 센터장 서경주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前 고문 서은주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석도준 웰플란트치과 원장	유은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지원부 부서장 윤재영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규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 이상진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이상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획실장 이원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원장 이은아 비장애형제 자조모임 “나는” 대표 조명민 장애인 부모 조준희 세브란스봄치과 원장 차지민 연세나무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 최진희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영유아발달연구소 소장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지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부원장
기부컨설팅위원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박태규 위원장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법률자문위원회 재단의 법률문제를 자문·지원합니다.	유욱 위원장 태평양 NPO법률지원센터장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경호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변호사	이양원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상용 전상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

산하기관 현황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푸르메재단 산하기관입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시민과 기업, 정부와 지자체의 힘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T. 02-6070-9000 H. www.purmehospital.org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 장애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재활 및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발달 전문 기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2층 T. 02-6395-7025 H. www.ipurme.org	종로아이존 발달장애어린이에게 다각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2층 T. 02-6395-7045 H. www.jongnoaizone.or.kr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이웃과 함께, 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속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700 H. www.seoulcbid.or.kr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40 T. 02-2185-8000 H. www.happyseed.or.kr	종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3층 T. 02-6395-7070 H. www.jpurme.org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91 H. www.seoulats.or.kr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65 H. www.seoulats.or.kr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중증장애인에게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90 H. mpvrc.modoo.at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에게 제빵기술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80 H. seoulpanis.modoo.at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장애청년들이 전문 바리스타의 꿈을 펼쳐가는 희망찬 일터 T. 070-4242-2626 H. happy-cafe.co.kr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체육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1층 T. 02-6070-9270 H. www.purmesports.or.kr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책을 읽는 문화공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1층 T. 02-6070-9286 H. mplib.mapo.go.kr/purme	푸르메소셜팜 장애청년이 즐겁게 일하며 자립하는 국내 최초 스마트농장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247 T. 031-882-5181 H. purmesocialfarm.modoo.at	무이숲 장애·비장애의 경계 없이 모두를 위한 베이커리 카페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247 T. 031-8051-2900
---	---	--

푸르메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05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장애어린이와 가족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푸르메재단에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동의 없이 글, 사진, 그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원문의 02-6395-7008 이메일 hope@purme.org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801-927975(예금주: 재단법인 푸르메)



purmefoundation



@purmefoundation



purmefoundation2005



푸르메재단



푸르메재단